

# 군산항 컨테이너 신규항로 추가 개설

### 中 연운항·위해 항로... 기업체 물류비 절감·물동량 유치 등 경제 활성화 과란불

군산항 국제선 신규항로가 올해 상반기에 2개가 개설(군산~청도, 군산~일주)된데 이어, 8월말에는 '군산~中 연운항·위해' 항로가 개설 예정으로 역대 가장 많은 정기항로를 운항하게 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0년 2개 선사 2개 항로를 운항했던 군산항이 중국 및 일본과 국내 주요항을 기항하는 6개 선사 8개 항로로 확대 운항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신규항로 운항선사는 소페스

트코리아(주)로서 연간 6천TEU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상반기 27% 증가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더 한층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항로 개설에 따라 항로 부족으로 타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도내 기업체의 물류비 절감 및 신규 물동량 유치를 위한 항만공사사 수입 증가 등 군산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선사들이 군산항 정기항로를 연이

어 개설하는 것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동으로 새로운 물동량이 발생되고, 전북도·군산해수청·군산시가 군산항 포트세일(Port Sales)과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효과로 보인다.

과거에는 물동량 부족으로 선사들이 군산항을 기피하면서 항로가 부족하여 물동량이 타 항만으로 이탈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포트세일과 인센티브 지원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선사들이

군산항에 관심을 갖고 신규항로를 개설하면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물동량 증가에 따라 다시 신규항로가 개설되는 선순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도내 기업체의 물류흐름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군산항 포트세일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신규항로를 개설하고, 물동량을 확보해 군산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북·대구 어린이 하나되다 이들간 문화 교류캠프 진행

전북도는 1999년부터 격년제로 대구와 전북을 오가며 미래의 주역인 전북과 대구지역 어린이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문화 및 역사체험, 친교의 시간 등을 갖고 양 지역간의 우호증진과 화합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3일과 4일 전북·대구 호·영남 친구들이 하나가 되어 전북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청에서 환영식을 갖고 전주 한옥마을로 이동,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하는 투어를 하게 된다.

특히 대구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인해 큰 호응이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경기전에서의 우리 고장 역사탐방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한옥마을에서 우리고장의 청정지역인 장수로 이동, 명랑운동회와 물놀이하고 장수군 반암면 소재에 위치한 우석대연수원에서 전북·대구 어린이 80명이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허룻밤을 보내게 된다. 다음날에는 오전에 보물찾기, 짝꿍에게 편지쓰기, 문화골든벨을 하고, 임실로 이동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를 견학한 다음 직접 치즈만들기 체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역시 아이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약 18년의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하고 있는 호·영남 어린이 문화교류캠프는 동서를 하나로 묶어 주고 화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참여했던 수 많은 어린이들은 아바 캠프에서의 많은 추억과 우정을 간직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정책 포럼

도중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정책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도, 지방도로 유지·관리 만전

### 하반기 추경 42억원 확보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올 상반기에 덧씌우기 30지구 47km, 배수시설 33개소, 절개지 10개소, 교량 보수·보강 33개소의 정비를 조기완료 등 지방도 유지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상반기중 사업비 146억원(집행률 61%)을 신속집행 함으로써 도내 일차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지방도 덧씌우기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경에 42억원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도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가드레일,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필요한 예산 3.5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전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지역사회 공동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열악한 도로의 기하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18년 원공 목표로 공사중에 있다. 신규 사업지구로 선

정된 4개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현재 전북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62개노선 1,805km(포장률 82.6%), 터널 22개소, 교량 496개소 등의 시설물을 관리 하고 있다.

이에 포장도로 공용성 향상과 교량 등 시설물 내구연한 확보를 위해 제초작업(12노선, 135km), 소파보수(1,337건), 차선도색(160.2km), 과적단속(87건) 및 교량·터널·옹벽 점검(59개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신규 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도로 유지관리에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방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엠블럼		마스코트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 전국체전 마스코트 최종 확정

### 서동왕자·선화공주 모티브로 익산시 역사성 상징

2018년 10월 전북도에서 개최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과 대회기간에 대한 심사가 지난 7월말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주관/대한체육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되어 최종 확정됐다.

전북도(전국체전준비단)는 3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회상징물 공모를 실시하고 당선작 선호도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상징물 5종 9점(엠블럼 2, 마스코트 2, 포스터 2, 구호 1, 표어 2)을 최종적으로 선정,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로부터 확정 승인을 받았다.

이와관련 '2018년 전라도 천년'을 맞이해 전북의 위상을 정립하고 양대 체전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념형(10종), 응용형(8종) 등 다양한 형태의 매뉴얼 개발에 막바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회 상징물 '엠블럼'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찍은 도장(국새관인) 이미지를 프레임화하여 천년고도 전라북도 자랑거리를 유쾌하게 라인아트로 표현, 블랙컬러를 과감히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마스코트'는 삼국시대 가장 유명한

청년(서동왕자: 백제 위덕왕의 증손)과 처녀(선화공주: 신라 진평왕의 차녀)의 결혼을 모티브로 주 개최지인 익산시의 역사성을 상징하고, 대회 구호인 '비상하라! 천년전북, 하나되라! 대한민국'을 통해 화합의 의미를 함께 담았다.

'대회기간' 결정은 국내·외 대규모 행사일정, 날씨, 학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도교육청, 시·군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잠정(안)을 선정했다.

한편, 주개최지 익산시 중심으로 도내 전 시·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장애인체전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 1월 설치한 전국체전준비단에서는 대회조직위·집행위 구성완료, 체전상징물 개발, 종목별 경기장배정 및 체전시설확충, 국가예산확보 등 단계별 로드맵에 의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고재현 전국체전준비단장은 "체전 상징물과 대회기간이 최종확정됨에 따라 체전홈페이지 구축, 전광판 표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2018 전국체전 홍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폭염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

### 만성질환·합병증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등 모니터링 실시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찾아온 폭염의 시기에 따라 전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군인 취약계층의 건강안전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의 전담인력이 취약계층의 가정 등을 방문, 대상자에 대한 건강문제 스크리닝(건강행태 및 건강취약요인 파악),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사업으로 폭염 속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지속적인 모니

터링을 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016년 취약계층 중에서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취약요인이 큰 취약계층인 9만7,818가구, 11만9,464명을 가정방문할 만큼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위의 취약한 이웃들이 무더위를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폭염 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알리고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슬기롭게 대처하자"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